

조선소년단 축하 단 축하 하 시 축하를 드려요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평양 광복거리
원복관에
높이 솟아 빛나는 김
청년운동사적관에
어제동무 손잡고 찾아왔던 날

오늘도 청년들과 함께 계시는
대원수님들 우리려 인사드리며
우리는 알았어요
어머니 우리 땅이 오빠, 언니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백두의 그날부터
청년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그 사랑 그 믿음 끝이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오빠, 언니들의 대화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남이 가면 갈수록 커가는 사랑
현없는 고마움에 가슴지시는
온 나라 오빠, 언니들의 마음도
함께 담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동맹을
김일성, 김정원수님들의
청년조직으로 영원히 빛내이고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모두가
어머니당 제7차대회 결정판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펼쳐갈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대회
명세로 불리는 총성의 대회
청년동맹의 교도자 조선소년단은
가장 열렬한 축하 축하를 드립니다

대표오빠, 언니들
밝은 희망 넘치는 우리 집 하얀
벽에는
청년동맹 제8차대회가 열린던 날에
대원수님들 모시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학교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우리라고 또 우리라면
살은 시절의 나의 아버지
장진수의 아버지는 말한답니다

대원수님들과 어머니당의 품에
안긴
우리 나라 청년들보다
더 행복한 오빠, 언니들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아 말하는 사진
그것이 실 때면
대원수님들 생각이 자꾸 납니다
청년운동으로 혁명을 시작하신
김일성대원수님

청년들을 이끄시어 일제를 쳐부
시고
청년들을 이끄시어 미제를 때려
부시고
청년들을 이끄시어
사회주의 꽃동산을 펼쳐주셨
습니다

풍정
민청
사모청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이것은 정녕
김일성대원수님 열어주신 길
김정원수님 펼쳐주신 길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따라
청년동맹이 달려온
지팡이 승리의 한길이었습니

대원수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청년동맹 제8차대회가 열렸던
그날로부터 날과 달은 흘러
10년 또 10년 또 10년
그날의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었고

청년동맹은
대원수님들의 손길을 따라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총정과 위훈을 세기며
온 세상에 그 이름 펼쳤습니다

정녕 잊을수 없습니다
청년중시를 우리 당의 전략적요선
으로
청년들과의 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 계시던



아버지장군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를 이어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라고
혁명의 횃불봉도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으로
그 이름 빛내어주시며
김일성대원수님 영상을 높이 모신
청년동맹기반도 수어해주셨습니다

말리는 아전자안에서
꼭잡아져 그리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길에서도
아버지장군님 마음속엔
언제나 청년, 청년들이 있었습니

청년들을 크게 믿으시고
청년영웅도모건설을 통채로 맡겨
주시고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고 하시며
말리는 아전자도 멈추시던 우리
장군님

통장님이 몇말을
찬눈비에 비벼먹으면서도
미더야 어서 가지
장군님으로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
스러웠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청년들을 그리보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한키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하시며
손수 고기만두도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

옥류관, 청류관 정양의 이튿날
식당
부침한 식탁앞에서
아버지! 아버지- 목놓아울던것이
어제 그날의
오빠, 언니들뿐이었습니

아 그 나날에
눈비에 젖은 아전복자락이
오늘은 우리의 교운 옷감이 되고
밤새워 말리면 아전자의 그
불빛이
총총 높은 새 집들에 밝게 빛나
는줄
우리 알기나 했습니

오실것 같아
그날처럼 김일성대원수님 모시고
아버지장군님 오실것 같아
주시던들 우리라고 또 우리라면

꿈결에도 그림면 우리 대원수님들
환하신 태양의 웃음으로
밝은 햇빛을 뿌려주시며
물없는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원수님들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대표오빠, 언니들
백두산담사행군의 그날에
원수님 정배주신 로정을 따라
백두산영웅청년법전소
밝은 불이 활짝이는 호수가에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한줄 불을 모아지면
면벽이는 혼장들이 보일것만 같아
뜨기위치는 우리 마음속엔
오빠, 언니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며
원수님 걸으신 그 자욱자욱이
없음이 불길처럼했습니다

대원수님들의 뜻으로
대원수님들의 손길로
우리 청년들을 키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마음쓰시고
얼마나 힘찬 길 걸으셨습니

청년동맹을
우리 땅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후대, 익축후대로
오빠, 언니들모두를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걸은길은 손잡아 이끌어주신
원수님

은 나라가 피눈물속에
새를 맞이하던 그날에도
청년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언제나 곧바로 땅을 따라 앞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없음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불멸의 모작으로
나갈 길도 한리 밝혀주셨습니다
주제100년대
셋 청년들을 맞이할 때도
청년전위 면벽에서 오빠, 언니들에게
축하분까지 보내주신 원수님

우리가 청년들에게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태양의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것
이라고
뜨겁게 말할수며
오빠, 언니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없음이 이어가신 길

아 그 길에는
원수와 총무리를 맞은 최전연초소
면적비밀하는 전설장
천비루리는 밤이
참구의 교정도 있었습니

지재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고마운 스승이 되시어
언제나 형님, 누나들결에 계신
우리 원수님

날마다 떠어나는 이름
날마다 꽃피는 이름
우리는 자랑합니다

산새속에서도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정의
모시고

우리말을 떠나간 언니
그 소생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도 가슴아프시어
말이나 그 언니의 이름을 부르시며
학생의 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더라고요

청년비룡구지대회 열린던 날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운
그 언니가 그러도 대견하시어
쳐내어 어머니라고 다정히 불러
주시며
사랑의 사진도 찍어주셨습니

조직과 동무들을 떠나
시대의 막장이 되어 버린단 청년
들이
오늘은 시대의 선구자가 되었다고
오래도 기뻐하시며
원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 같은신분 세상에 없
습니

백두산영웅청년법전소를 찾으신
그날에도
하늘높이 솟아오른 언제를 바라
보시며
당중앙을 옹위하시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같다고
그러도 태연하시던 원수님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를 이어 불려줄
시대의 기념비를 세우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 하시며

금방에서 동중 꽃방석에 동중
하늘끝에라도 들어주고싶은
마음
아슬한 언저리 한복판에
영웅청년군함도 세겨주시고

우려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고 말씀하실 때
백두의 하늘가에 떠 오르르면
그날의 우렁찬 만세소리
오늘도 이 대회장에
물없이 메아리쳐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
원수님 불러주시 이름도 많아
영웅청년전위의 주인공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
청년비룡구지...

정말정말 내 나라는
어릴 가나 이름도 많아
청년전위, 청년관망
청년자업관, 청년분조...

날마다 떠어나는 이름
날마다 꽃피는 이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 이름 다시한번 불러보며
우리는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복은 많고많아도
제일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인가
대를 이어 누리는 해님복이지
원수님 품에 안긴 태양복이지

그런데도 글세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복중에도 제일 큰 복은
청년, 청년복이라고요
정을 담아 뜨겁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빠, 언니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자의 거인으로
천만자주 품을 붙여 키워주시고
민중을 또 민중을 안겨주시는
원수님은 지애로운 우리 아버지

사회주의 만세소리 높이 울려져
행복의 꽃동산의 주인공을 위해
천만마를 다 바치시며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주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오빠, 언니들!
나이는 어찌도 우리는 알니다
백두대지에서 오빠, 언니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그것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
오빠, 언니들의 가슴마다 넘치나
간절한 그리움이
그대로 총성의 날개
위풍이 날개가 되어
이 땅에 내려진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합니다
사나운 폭풍, 불씨는 파도속에서도
기슬을 부리는 불길속에서도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부터
먼저 정히 모시고
은물이 불에 타면서도
조국의 민년세부 구호나루를 지켜낸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그
오빠, 언니들

우리는 자랑합니다
백두의 혼연일봉으로
진군을 오중을 7번째
진군을 벌며 나는 군위사단으로
백두의 혁명강군, 맹장들을 키워
내는 길에
병사들의 헌신이 되고 만우이가
되어주던
그 청년일군 형님, 누나들

백두의 불침성으로 세계를 흔들고
우리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도 칩씩 쏘아올리는
청년과학의 기관사가 되어
경제강국건설의 물과구를 열어가는
청년과학자 오빠, 언니들

우리는 자랑합니다

청년들께대 파견장을
백두청춘대학의 입학통지서로
받아안고
날아가던 새들도
돌덩이처럼 떨어진다 강추위
속에서도
청춘의 심장은 얼지 않는다
찬물에 뛰어들어 원수가 그대로
언제가 되고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
어머니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리마다에서
청춘의 용맹과 기상을 떨치며
당대의 높은 연단에서까지
우리 원수님 크게 칭찬해주신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

축하를 드립니다
자강적 민복의 열의를 역세게 들어
취고
오늘도 당대회결정판의 돌과구를
낸 앞장에서 열어제끼며
만리마를 타고 이 대회장에 달려온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 축하를 드림
니다

명세로 불리는 이 대회장
자랑많은 대표오빠, 언니들의 모습
에서
우리는 봅니다
청년강국의 금자함으로 높이 솟아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백두산
대국을

김정원수님 높이 모시어
세상에 부딪혀오라 목청껏 노래
부르며
웃어도 남보다 크게 웃고
가슴에도 남보다 꼭 쥐고
세계의 한복판에서
당대의 나가는 형님, 누나들

청춘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
눈부신 미래가 밝게 웃는 나라
사람마다 부러워하는
이 세상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당대의 나가는 형님, 누나들

당대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
눈부신 미래가 밝게 웃는 나라
사람마다 부러워하는
이 세상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당대의 나가는 형님, 누나들

행복의 요람, 사회주의 우리 집이
없으면
공장의 주인이던 오빠, 언니들은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고
땅의 주인이던 형님, 누나들은
지주들의 노예가 된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있어요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활하여 해칩니다

당의 운명은 청년들의 운명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명도는
청년동맹의 제일생명입니다

오빠, 언니들! 형님, 누나들!
500만이 팔을 끼면
천길만길의 성벽이 되고
500만이 말을 구르면
지구도 제어됩니다

오빠, 언니들은 모두가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가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500만개의 혁명관이 되어주세요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수호도 용기를 모르는 사나운
맹수가 되고
선군혁명의 제1선투사가 되어주세요

명령은 내렸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이
끓음이 썰렁 끓는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을 부릅다
물불을 가리랴 땅의 부름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들의
천리마의 고삐를
오늘은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이
만리마의 고삐로 받았습니다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원공으로
영웅청년전위를 또다시 창조하여
조선청년의 본래를 보인 형님,
누나들

오늘도 200일전투의 기수가 되어
우리 혁명력사의 제1페이지 아래
새겨진
백두산기슭 삼지연앞에
조선로동당당선소리
제일먼저 울려져서 하려고
청춘의 피와 땀을 다 바쳐가는
우리 당의 자랑인 오빠, 언니들

그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의 가슴마다에 굶주리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만리마의 발굽소리 더 높이 울리며
은 나라 조국땅이 그대로
청년, 청년만이 되게 하여주세요

소년단원 우리들도
원수님께 기뻐함을 드리는
오빠, 언니들의 그 모범 따라배워
남마다 주렁지는 지며 5점일대로
강성조선의 앞날을
신성중에 먼저 새겨주세요
합일의 아들단원들처럼
전회의 소년단원대, 소년맹제사들
처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참된 소년단원대, 소년혁명가가
됩니다

자립성, 규율성, 집단주의정신으로
몸과 마음 혼돈이 다지며
앞날의 청년강국 주인으로
오빠, 언니들의 뒤를 꼭꼭하게
이어갈래요

우리는 믿습니다
남선의 푸른 소나무
영원히 한길을 가리랴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이 대회장에서
원수님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하나가 열, 열이 백을 이끌어
온 나라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
모두가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힘차게 달려가는 맹장대부대의
위용을
은 세상에 펼쳐들것을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백두산대국
사회주의강국의 문배를 남먼저
다는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의 우렁찬
마치소리
정녕- 온 강안에 울려져질 그날을
손잡아, 손잡아 기다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에도
별이 붉은 저녁에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마다 넘치는 소원은 하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만세!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 만세!